

임진왜란 시기 의승군(義僧軍)의 문학적 형상화

-홍성원의 『달과 칼』을 중심으로

한명섭*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호국불교로서 의승군의 등장 배경과 활약
 - 2.1 조선 전기 불교계의 상황
 - 2.2 의승군의 조직과 활약
3.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와 당대의 불교
 - 3.1 임진왜란 시기 승려의 사회적 지위 변동
 - 3.2 의승군의 활약과 불교의 위상 변화
4. 결론

*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한국학전공 조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임진왜란을 다룬 홍성원의 역사소설 『달과 칼』에 주목했다. 이 소설은 평단이나 학계로부터 소외된 경향이 있으나 작품의 수준이 부족한 작품이 절대 아니다. 작가 홍성원이 쓴 최초의 본격 역사소설이라는 점에서 이후 그가 선보인 역사소설과의 연관성 역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임진왜란을 다룬 역사소설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 작품이 전쟁을 주도한 영웅들을 앞에 내세우지 않고 당대 사회의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그려냄으로써 임진왜란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는 앞선 연구 성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 논문은 작품 속에서 승려와 의승군의 활약을 다룬 부분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순신과 수군들을 중심으로 이 소설을 분석하였지만, 의승군과 승려들 역시 소설에서 유의미한 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임진왜란 전(前) 승려들이 처해 있던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살피고 작품 속 의승군을 다룬 서사에서도 이순신과 수군을 다룬 것과 마찬가지로 승병장이 아닌 승병 개개인을 들여다보는 수법을 사용하여, 작가가 역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달과 칼, 임진왜란, 의승군, 홍성원, 역사소설, 조선시대 불교, 승병

1. 들어가는 말

홍성원의 『달과 칼』은 임진왜란을 소재로 쓴 역사소설이다. 작가의 작품 중에서 이 소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작품의 수준으로는 아쉽지 않은 작품이다. 3편의 대하소설을 창작한 작가 홍성원이 최초로 써낸 본격 역사소설이라는 점에서 이후 그가 선보인 역사소설 『만동』, 『수적(水賊)』, 『남과 북』과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작품이다.

이승준은 『달과 칼』은 전쟁을 주도한 영웅들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밑바닥 백성들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¹⁾ 본고에서는 작품 속에서 인상적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승려 ‘사발’과 그의 주변에 등장하는 의승군 및 불교계 인물을 다룬 부분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 승려들의 사회적 위상은 물론 의승군의 실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승군을 다룬 작품들은 대개 승군장이었던 사명대사 유정이나 서산대사를 주인공으로 한 역사소설²⁾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작품은 주인공에게 집중하여 서술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홍성원이 소설 속에서 임진왜란의 영웅을 등장시키지 않은 채 주요 사건을 다룬 수법과 마찬가지로 의승군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승군장들의 이름과 활약만이 간략히 언급될 뿐 전면에 등장시키지 않는다. 의승군의 전공(戰功) 뒤에 가려진 의승군들의 고된 헌신을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의 이면에서 활약한 그들의 희생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소설에서는 전쟁을 통해 드러나는 윤리의 파탄 상황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윤리가 무너진 상황

1) 이승준, 「‘달과 칼’ 연구-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홍성원 장편소설 연구』, 역락, 2017, 103~104면.

2)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임진록』을 비롯한 고전소설이 있고, 근대 이후에는 장도빈의 『서산대사와 사명당』(덕흥서림, 1926), 강근형의 『임진왜란과 사명당전』(영화출판사, 1954)과 같은 딱지본 대중소설은 물론 사명당을 다룬 본격 역사소설로 이종인의 『사명대사』(정토 문화사, 1957), 최인옥의 『사명당전』(을유문화사, 1962), 오염의 『비련의 연인과 사명당』(문교 출판사, 1964)과 박노아의 희곡 『사명당』, 박중환의 시나리오 「사명당」이 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수의 작품이 있다.

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인물인 바로 운수승(雲水僧) ‘사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운해사 조실 모우당의 행적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의승군의 활약 못지않게 작품에는 불교의 계율을 지키려는 노력 역시 비중 있게 등장한다.

본고는 소설 『달과 칼』³⁾이 16세기 조선의 불교계 상황을 작품 속에 일부분이나마 사실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살피고 작품 속 내용을 비교하여 작가가 의승군의 활약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당시 불교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 호국불교로서의 의승군의 등장과 활약

조선은 유교 국가를 천명하며 개국하였다.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며 불교 배척을 내세운 데에는 사원 경제 기반의 환수를 통한 국가 재정 확대와 관련이 있었다. 한편, 성리학적으로, 불교는 인륜을 저버리는 대표적 이단이자 국가에 이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불교의 척결이 야말로 당대의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조선이 개창된 1392년 이후에도 승려나 사찰과 연관된 폐해를 억제하는 차원에 머물렀을 뿐이다. 본격적인 억불정책이 시행된 것은 태종 즉위 이후였다.⁴⁾

2.1 조선 전기 불교계의 상황

태종 때는 국가에서 지정한 11개 종단의 242개 사사(寺社)를 제외한 전국 사사(寺社)의 사사전(寺社田) 3~4만 결(結)이 속공되었다. 그러

3) 『달과 칼』은 대구매일신문 본, 한양출판 사본, 신서원 본으로 텍스트가 3개 존재한다. 대구매일신문에 85년 6월부터 88년 6월까지 총 924회에 걸쳐 연재했다. 1993년에 한양출판사에서 5권이, 2005년에 신서원에서 5권으로 출판되었다. 필자는 신서원 본을 최종결정판이라 한 이승준의 견해에 동의하며 이 논문에서는 신서원 본의 『달과 칼』을 텍스트로 삼는다. (이승준, 앞의 책, 104~109면 참조)

4) 김용태, 「조선 전기 억불 정책의 전개와 사원 경제의 변화상」, 『조선 시대사 학보』 58, 조선시대사학회, 2011, 7면.

나 이 조치가 ‘폐불(廢佛)’의 수준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세종 집권 초반에도 강도 높은 억불책이 수행되었다. 1424년(세종 6)에는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양종) 兩宗으로 통합하며 기존의 종파를 정리하였고 선·교종(禪·敎宗)에 36개의 사사(寺社)만 인정하였다. 양종 36사의 공식 허용 승려 수는 총 3,750명으로 제한되었고, 사서전은 태종 때 11,000여 결이었던 것이 7,900여 결로 축소되었다.⁵⁾

15세기 초에는 연산군이 전국의 사사전을 속공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시행되기 이전에 중종반정이 일어났다. 1516년(중종 11)에는 『經國大典』의 <도승조(度僧條)>가 삭제되면서 법제적으로 폐불 조치가 단행되었다. 불교계는 16세기 중반 명종 대에 와서야 다른 상황을 맞을 수 있었다. 1550년(명종 5) 문정왕후는 선교 양종을 다시 세웠고 도승(度僧)과 승과(僧科) 역시 다시 시행되면서 불교 유지를 위한 인적 재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때 승직을 부여받은 승려들이 전국 주요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었고, 승과 출신들이 불교계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선·교종판사였던 서산대사(西山大師) 즉 청허(淸虛) 휴정(休靜)과 휴정의 제자인 사명(四溟) 유정(惟政)이 있다.

1566년 양종(兩宗)이 다시 혁파되긴 하지만 1550년부터 조선 초기에 비해 비교적 개선된 상황에서 불교계는 활동할 수 있었다. 선조 때에는 사림 주도의 봉당 정치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유교 사회로 접어들었다. 불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방임에 가까울 만큼 큰 억압은 없었다. 이 시기에 휴정 등 고승들은 저술과 교육활동에 힘썼고 각종 불사를 주도하며 사대부들과의 교류를 넓혀갔다. 임진왜란(1592년)이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청허 휴정은 양종 복립 때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에 제수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으로 의승군을 일으켜 그 공적을 인정받았다. 휴정은 불교계의 통합을 추구하는 가운데 선과 교를 겸수하는 수행 체계의 정립에 힘썼다. 관동의 유정, 호남의 뇌묵(雷默) 처영(處英), 황해도 의엄(義嚴) 등 의승군의 승장들은 휴정의 제자가 대부분이었다.⁶⁾

5) 앞의 논문, 8면.

6) 김용태,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 『보조사상』37, 보조사상연구원, 2012.2, 233~235면.

2.2 의승군의 조직과 활약

의주(義州)까지 몽진을 간 선조는 1592년(선조 25) 7월에 승통(僧統)을 설치하고 묘향산에 있던 청허 휴정에게 팔도십육종선교도총섭(八道十六宗禪敎都摠攝)의 직책을 수여하여 승군을 담당하도록 명했다. 선조는 휴정에게 국가를 위기에서 구제하기를 청했고 휴정은 “나라 안의 승려 가운데 늙고 병들어 나설 수 없는 자들은 신이 이미 명하여 각자 있는 곳에서 수행하며 신령의 도움을 기원하게 하였고 그 나머지는 신이 모두 소집해 오게 하여 종군케 하고자 합니다.”⁷⁾”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후 휴정은 순안(順安) 법흥사(法興寺)에서 전국 사찰에 격문을 띄워 5천여 명의 승군을 소집하였다. 의승군은 다음 해 평양성(平壤城)과 해주산성(幸州山城) 전투에 직접 참전해 큰 전공을 세웠다.⁸⁾ 다음은 『달과 칼』에서 평양성 싸움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다.

“방금 여러 스님네가 천도 기원을 허는 것 같던데 이 어두운 강변에 나와 어느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셨소?”

“지난번 평양성 큰 싸움에서 삼군의 전망한 군사가 수천에 달합니다. 도총섭(都摠攝) 큰스님이 우리를 불러 삼군의 전망한 군사들을 천도하라는 분부가 계셨지요.”

“나무 관세음……. 현대 삼군이라니 어느 어느 군사들을 이르는게요?”

“조선군 명군 왜군. 이렇게 세 나라 군사를 이르는 게지요.”

도총섭은 서산대사 휴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임진년 가을 휴정은 그의 제자 사명당 유정과 함께 순안(順安) 법흥사(法興寺)에서 의승군을 일으켰다. 그 뒤로 승군은 근왕에 임하다가 지난 정월 평양성 싸움에서 동정군 명군을 도와 성을 되찾는 데 큰 몫을 한 것이다.⁹⁾

조선 중기 의승군 전통은 불교와 국가와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밀착

7) 고영섭, 「조선 후기 승군 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한국 사상과 문화』 72, 한국 사상문화학회, 2014, 3, 210면.

8) 앞의 논문, 240면.

9) 신서원본, 4권, 94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의승군은 임진왜란이란 국가적 위기에서 등장한 것이지만,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려가 승군을 조직해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의문이 생긴다.¹⁰⁾

조선시대 의승군은 호국을 우선시하여 ‘불살생계’나 ‘무기 소지 금지’의 계율을 어기고, 국왕을 위한 살생을 인정하고 전쟁에서 싸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파격을 행한 것이다.¹¹⁾

한편, 소설 속에서는 살생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전투가 끝난 후에는 왜군에게도 차별 없이 천도 기원을 해주는 의승군의 모습은 본래 종교인인 승려들이 전쟁에서 살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호국을 위해 무기를 들고 일어섰을 뿐 승려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승군 역시 개별자로서 승려임을 잊지 않고 있으며 전후 불교의 계율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1593년 3월 한양 수복 이후 의승군은 군량의 보급, 산성(山城) 축조와 수호 등에 동원되었다. 한편 전주(全州)에 있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국가 기록물, 태조의 화상(畫像) 등도 강화(江華)에서 해주(海州)와 의주(義州) 등을 거쳐 묘향산으로 옮겨졌다. 이를 지키는 일을 승려들이 맡았다. 유정은 8백의 승병으로 강원도에서 거병한 후 휴정을 대신하여 전투에 직접 참여하였고 산성축조와 군량 조달 등 전쟁 지원 사업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前) 도총섭을 역임한 유정의 공은 선조에게 높이 평가되어 정3품 당상관인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까지 제수를 받았다.¹²⁾

호남지역의 의승군 활약의 대표적 사례로는 화엄사의 의승군을 들 수 있다. 당시 주지 설홍(雪弘)은 승군 300여 명으로 일본군과 맞서 석주진(石柱鎭)에서 전투를 벌이고 전사하였다. 이후, 왜군은 화엄사의

10) 김용태, 「조선 중기 의승군 전통에 대한 재고: 호국불교의 조선적 발현」, 『동국사학』 61,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12, 89면.

11) 앞의 논문, 102면.

12) 김용태,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 243면.

전각 500여 칸을 불태웠다. 무주와 덕유산 일대에서는 담양과 남원 인근의 의승군이 지켰다. 호남의 승장 처영은 1천 명의 의승군을 지휘하여 권율(權栗)의 군대와 함께 참전했다. 다음의 인용 부분은 소설『달과 칼』에서 진주성 전투에 참여한 승군이 등장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왜적에게 진주성이 중요하듯 조선에게도 진주성은 빼앗길 수 없는 요충지다. 관군과 의병과 진주성 온 백성들도 그 중함을 알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되어 성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장대가 멀리 보인다. 성안에 있는 산성사에서 장대는 별로 멀지 않다. 승군에게 장대를 맡긴 것은 절에서 별로 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비탈을 따라 가까이 가니 장대의 높이 들린 처마가 밤하늘에 아름답게 솟아 있다. 장대 누문 위에는 번을 서는 군사 외에 장막이 둘러어져 장수의 군막까지 세워진 모양이다. 누대 아래 지핀 서너 개 화춧불이 장대의 이쪽 지붕을 흰히 밝히고 있다. 사노 몽둥이 앞서가다가 돌층계 앞에서 사발을 다시 돌아본다.

“자산스님께서 장대에두 아니 계시면 원네두 어디 계신지 더는 알 수가 없구 면요”

(중략)

잠시 말들이 멈춘 사이에 엄청 큰 중이 사발에게 흠신해 보인다.

“소승 문안이요.”

“운해사에 있을 자네가 여기는 어찌 내려왔나?”

“자산이 예서 큰 싸움이 있대구 사람을 보내라길래 제가 여남은 명 이끌구 내려왔지요.”¹³⁾

3.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와 당대의 불교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의승군과 그들의 공적 덕에 불교에 대한 사회 전반의 평가가 상향되고 정부에게는 승려를 활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시켜주는 생각을 할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불교계로서는 전쟁과 의승군 활동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만은 아니었다. 경제적으로나 인적

13) 신서원본, 3권, 287~289면.

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으며 전란 이후에도 승역이 관행화됨으로써, 불교계에 결국 큰 부담으로 이어졌다. 물론 승군과 승역의 제도적 운용으로 조선후기 불교가 용인되고 승려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호국(護國)¹⁴⁾을 통해 이루려 했던 호교(護敎)는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았다.

소설 『달과 칼』은 작품의 구조가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일정한 대응을 이루고 있다. 이야기 속에서 임진왜란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양반의 몰락과 다양한 백성들의 삶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양반 계급의 공고함이 깨어지고 중인들이 세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또, 역사 속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개인들의 생활과 감정을 통해서 역사를 드러내는 역사의 문학화에 성공했다. 역사의 흐름을 주도한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농부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형상화되어 있다.¹⁵⁾ 의승군과 승려들이 등장하는 장면 역시 유명한 승장들이 아닌 이름 없는 승려들을 내세움으로써 지극히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의 한 부분을 읽어내게 만드는 작가의 수법이 잘 드러난다.

3.1 임진왜란 시기 승려의 사회적 지위 변동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절은 약탈당했고, 전지(田地)는 황폐화 되었다. 사찰 건물이 대부분 불에 탄 것은 물론 사원의 재정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승군 활동으로 인해 가중된 경제적 부담 역시 큰 고충이었다.

은 산중이 텅 비었다. 절에 양식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도량을 지켜야 될 중들까지도 절을 떠나 빈 절들이 된 것이다. 많은 중들이 오래 전에 승군으로 뽑혀 어 갔고, 더러는 탁발을 나갔고, 더러는 아예 환속하여 영원히 절을 떠나기도 했다.

한번 탁발을 나간 중들도 다시는 옛 절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절로 돌아

14) 김용태, 「조선 중기 의승군 전통에 대한 재고-호국불교의 조선적 발현」 102면.

15) 최유찬, 『“토지”를 읽는 방법』, 서정시학, 2008, 67면.

가 보았자 양식이 없는 것을 잘 알았다. 난세에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는 참구하는 중들조차도 절에 들기를 꺼려하게 된 것이다. 16)

“전에는 안거 끝나면 훌쩍 나들이를 떠나던 어른이 올해는 무슨 일루 절에 놀러 계신답니까?”

“일 나가 사람들을 기다리는 모양이데.”

“일을 나가다니요?”

“진양성 성 쌓는 데두 나간 사람이 적지 았구, 가까운 함양 고을에두 연대(煙臺, 봉화대) 쌓는다구 여러 중들이 끌려나갔네.”

“진양에 나간 사람들은 쉽게 오기가 힘들 계구, 함양에 나간 사람들은 언제쯤 온답니까?”

“울력이 대강 끝나기두 했구, 그보다는 양식 때문에두 절루 다시 돌려보낼 듯 싶네.”

자산이 짚신 끝으로 발 앞의 땅을 툭툭 찬다. 일이 급할 때는 각 고을 수령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절의 중들이다. 그러나 일이 끝나고 양식만 축낸다 싶으면 제일 먼저 내치는 것도 바로 절의 중들이다. 이제 다시 해토가 되어 봄 굶주림이 시작될 철이다. 관창(官倉)을 열어 아까운 관곡을 풀기보다는 부리던 중들을 절로 돌려보내 군식구를 줄이자는 것이 고을 수령들의 속셈이다. 17)

수령들뿐만 아니라 일반 양반들도 전란기간 피난을 나와서까지 절에 피해를 주는데 그들의 행위로 인해 중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다음 인용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역사서로는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소설에서는 현장감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네가 내 말을 농으루 아네그려. 옛그제 진주성에서 선비 한 집안이 들이닥치더니 방 하나를 치우라구 해서 내 암자를 비워주었네.”

“그렇기루 큰스님 드신 암자를 빼앗아 드는 법이 어디 있소?”

“자네가 물정을 모르네그려. 절방에 지금 중보다는 피난 온 양반네가 더 많이 들어 있네. 태평세월에는 발걸음두 았던 양반네가 병화(兵火)가 터진 뒤루는 원

16) 신서원본, 4권, 210면.

17) 신서원본, 2권, 155면.

밥에 파리 피듯 하루에도 수십 가구씩 줄을 이어 절루 찾아드네, 양반은 그나마 절방에라도 들었네만 힘없는 고을 백성들은 산골짜기에 땅을 파구 움을 지어 살구 있네. 산으로 올라오면서 자네는 피난 나온 백성들을 보지 못했는가?”¹⁸⁾

의승군의 활약으로 불교의 위상이 일정부분 올라섰다고는 해도 여전히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았으며 생활 역시 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관 일선은 “말법이 쇠하고 세상이 매우 혼란하여 백성이 안도하지 못하고 승려도 편안히 머물지 못한다. 적의 잔해와 사람의 노고를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더욱 처감한 것은 승려가 속복을 입고 종군하여 죽고 도망치면서 출가의 뜻을 잊고 계율 실천을 폐하며 허명을 바라고 돌아오지 않으니 장차 선의 기풍이 멈추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청매 인오도 “참상과 전쟁이 날로 심하고 부역이 해마다 더욱 압박하여 남북으로 갈리고 산중에 희비가 끊어져 병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하였다.¹⁹⁾

은 산중이 텅 비었다. 절에 양식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도량을 지켜야 될 중들까지도 절을 떠나 빈 절들이 된 것이다. 많은 중들이 오래 전에 승군으로 뽑히어 갔고, 더러는 탁발을 나갔고, 더러는 아예 환속하여 영원히 절을 떠나기도 했다.

한번 탁발을 나간 중들도 다시는 옛 절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절로 돌아가 보았자 양식이 없는 것을 잘 알았다. 난세에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는 참구하는 중들조차도 절에 들기를 꺼려하게 된 것이다.²⁰⁾

공적을 세운 승군은 선과첩(禪科帖)을 받을 수 있었다. 본래 선과첩은 승과에 급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는데, 임진왜란 시기의 선과첩은 승려의 자격증인 도첩과 같은 의미로 활용되었다. 이는 선조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시행된 것이었다. 특히 진주성이 왜에게 함락된 직후

18) 신서원본, 3권, 8면.

19) 김용태,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 245면.

20) 신서원본, 4권, 120면.

에도 선과첩 발급 시행령을 재차 삼남에 내려졌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승군에게는 선과첩을 주도록 하였고 의승군이 전과를 보고하면 속히 선과첩을 내리도록 명하였다.

전란 중 승장 최고위직은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로 임명하였으나 불교의 입지가 강화될 조짐이 있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선교양종판사 대신 도총섭(都摠攝)의 직책을 내렸고 그 아래 총섭(摠攝)을 두었으며 비변사(備邊司)에서 이들을 임명, 관리하였다.

여러 문제점과 서로 다른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를 앞에 두고 승려들은 분연히 의병의 활약에 필적하는 전공을 세운 것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승려의 향사를 용인한 정조는 “불교는 자비가 중요한데 휴정은 그에 부끄럽지 않아 인천(人天)의 안목이 되었다. 종풍을 발현하고 국난을 널리 제하니 근왕(勤王)의 원훈이며 상승(上乘)의 교주이다. 속세를 구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의 자비이다”라고 하였다. 근왕을 위해 일어난 의승군의 공적을 치하했다. 국난에서 을 맞아 충의를 보여준 의승군과 의승장의 전공은 불교의 역할에 대해 재고(再考)하게 했으면 위상 역시 어느 시기보다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런 위상 제고(提高)는 조선후기 불교가 존립할 수 있는 중요 기반이 되었다.²¹⁾

3.2 의승군의 활약과 불교의 위상 변화

『달과 칼』의 등장인물 중 불교와 관련한 대표 인물은 소설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운수승 ‘사발’이다. ‘사발’이 등장하는 작중 배경지는 진주 일대와 지리산 황새들 골짜기다. ‘사발’의 등장과 함께 진주대첩과 진주성 전투의 상황을 전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전투 상황 묘사의 대부분이 해전으로 채워진 소설『달과 칼』에서 운수승 ‘사발’과 그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육전의 상황을 전함으로써 육전과 해전을 균형 있게 다루어 임진왜란의 다양한 정황을 작품 속에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 앞의 논문, 248면.

관관이 두 선승의 전승을 받으며 수하 군관들과 함께 절 마당에서 떠나간다.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멀어지자 사발이 먼저 방으로 들어간다.

“관관이 밤 깊은 시각에 절에는 무슨 일루 왔든가?”

사발을 따라 들어온 자산이 예사롭게 대답한다.

“싸움이 임박해 오자 성안에 군사 적은 것이 큰 걱정이 되는 듯허더이다. 승군이 특히 모자라는 듯허더면서 이 곳 산성사 승군들 외에 달리 성밖에서 원군을 청해 올 수 없겠느냐구 묻습디다.”

“원군을 어디서 청해 와?”

“두류산만 해두 운해사 화엄사 같은 큰절이 있구, 가야산에는 삼보(三寶)사찰 해인사가 있지 않느냐구 말헐디다.”

“관관이 잘못 아는 겠세. 절마다 모두 승병을 내는 줄 아는 게야.”

“지난 여름 기허당(騎虛堂) 영규(靈圭)가 청주성을 되찾은 것을 장히 여기는 눈칩디다.”

사발이 어이없는 듯 가볍게 웃음을 날린다. 승도 중에 제일 먼저 창의한 중이 공주 갑사(甲寺)의 선승 영규대사다. 그는 승군 1천을 거느리고 8월 초하루 청주성을 되찾은 뒤 보름 뒤인 8월 열 여드렛 날에는 금산성을 다시 치다가 8백명 승군들과 함께 장렬히 전망했다. 국초부터 줄곧 업수가 여겨오던 각 고을 수령과 유생들은 이 때부터 새로운 눈으로 승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라가 위협에 처하자 중들도 크게 쓸모가 있음을 본 것이다.²²⁾

다행히 지금 나라 안 각처에서는 글 읽던 백두(白頭) 포의(布衣)의 선비들이 왜적에게서 나라를 구하고자 창의할 궁리들을 하고 있다. 아니 벌써 6월 초순부터 현풍(玄風)과 무계(茂溪) 등 고을에서는 창의한 의병들이 왜적을 물리쳐 큰 공들을 세우고 있다.

민머리 선비들이 이렇듯 창의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산중의 절에서도 노장 대덕의 큰 중들이 젊은 중들을 뽑아 승군을 일으키고 있다. 나라 안의 백성이기는 중들도 역시 다를 바 없다. 제 나라 어진 백성들이 바깥 도적들에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암자와 선방(禪房)과 토굴 속의 중들까지 탐구정진의 참선을 깨고 왜적을 물리치고자 하나둘씩 떨쳐 일어선 것이다. 지리산의 큰절 운해사에서든 떨쳐 일어선 중은 적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승 자산은 누

22) 신서원본, 3권, 302면.

구보다 앞서 일어섰다. 그는 이미 여러 절을 돌아 치군에 들 젊은 중들을 규합했고, 지금은 산을 내려와 창의한 선비들을 찾아보는 중이었다.²³⁾

“의승군(義僧軍)의 군막을 찾아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될는지 모르겠구려?”

“의승군 군막은 어찌 찾으시우?”

“동접 한 사람을 만나러 가되다. 의승 도대장(都大將)두 아직 성안에 계신지 모르겠소?”

“도대장 대사님을 아시오이까?”

“옛날 한때 한 절에서 지냈지요. 여러 해 전 일이라서 도대장이 날 알는지 모르겠구먼?”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중들이 가까이 다가온다. 머리를 깎아 중인 줄 알 뿐, 강변의 여러 중들은 행진 치고 손에 각기 선장(禪杖)이나 창들을 들고 있다. 병장기를 몸에 지닌 것으로 보아 그들은 묻지 않아도 의승군임을 알 만하다.²⁴⁾

본래, 승려는 ‘무기 소지 금지’의 계율을 지켜야 하나 승병은 이들은 그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의승군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불교의 가르침을 오롯이 지켜내는 인물을 작품의 마지막에 등장시킴으로서 전쟁에서 승군으로 활약한 승려들이 걸어가야 할 본연의 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이 작품의 구성은 치밀하다.

“스님 말씀을 듣구서야 소승두 눈이 트이는 듯싶구먼요. 한 되나 되는 큰스님의 사리를 주워 담으며 소승은 모우당의 입적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허나 이 험한 난세에두 모우당 큰스님은 도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또 있으리까.”

“내가 자네를 깨우치기 전에 자네가 나를 먼저 깨우쳤네. 불탄 빈 절을 지킨 자네는 이미 모우당의 입적한 뜻을 알구 있었네. 자네가 아니면 내가 어찌 모우당의 사리라두 만나볼 수 있었겠는가?”

23) 신서원본, 3권, 129면.

24) 신서원본, 4권, 92면.

“불타버린 운해사는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다시 세우려 애쓰지 말게. 운해사가 불에 타 없어진 것은 다른 산에 더 큰 절을 세우라는 뜻일 수도 있네.”

“허면 모우당의 사리탑은 어찌 세우려 허시는 겁니까?”

“탑 세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 모우당의 입적한 뜻도 절루 사방에 퍼질 겠세. 그리 되면 모우당의 사리탑은 땅 위에 세워지질 않구 사부중四部衆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게지.”

온 세상이 난에 휩쓸려 제자리들을 잃고 허둥대고 있다. 그러나 운해사의 모우당만은 끝내 제자리를 지키다가 자기 몫을 다하고 입적했다, 세상에 큰일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제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모우당의 죽음을 보고서야 시발은 비로소 계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²⁵⁾

저녁 예불을 올리던 모우당²⁶⁾은 운해사에 쳐들어온 왜적이 법당에 불을 지르자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법당과 함께 입멸했다. 의승군이 나라를 지키고자 산을 내려가 전쟁을 하는 동안 모우당은 끝까지 절을 지킨 것이다. ‘사발’은 이에 대해 “제자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모우당의 사리탑은 땅 위에 세워지질 않구 사부중의 마음속에 세워진다’며 모우당이 입적한 뜻도 그러할 것이라고 한다. 모우당의 자기희생적 죽음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지를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고 감동적인 결말이다.

마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 모처럼 밝은 웃음이 떠오른다. 그러나 임진년 시월에 그토록 애써 지킨 진주성도 이듬해 계사년 유월에는 왜적들에게 떨어지고

25) 신서원본, 5권, 163면.

26) 작가는 『먼동』의 첫머리에서 자신의 소설쓰기와 관련하여 “결국 소설이란 행복했던 시대의 역사에서보다는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더 흥미 있는 소설적 공간가 주인공들을 발견한다. 역사적으로 불행했던 시대가 뛰어난 인물들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설은 다시 그 인물들의 뒤를 쫓음으로써 역사의 부정적인 진행을 보상하는 또 하나의 역설적인 교훈을 그 시대의 인물들 속에서 이끌어내는 것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역사는 그리하여 그 시대를 바로잡고 극복하려는 뛰어난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자칫하면 함몰하기 쉬운 역사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로부터 우리를 구출한다.”는 역사소설 관을 피력한 바 있다. (홍성선 편,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7, 339면.)

말았다. 왜란 7년에 크고 작은 싸움이 많았지만 두 차례의 진주성 싸움처럼 처절했던 육전은 없다. 왜적들은 바로 이 두 싸움을 겪고서야 조선 침공에 기가 꺾이어 스스로 철군하기에 이른 것이다.

“두산이 아제를 만나보셨습니까?”

“나홀 전에 운해사루 찾아왔드라네. 자네가 전하는 말을 듣구 내 한달음에 산을 내려왔네.”

사발의 말씨가 저도 모르게 해라에서 하계로 바뀌었다. 하긴 옛적에는 그의 품에 든 어린아이였으나 지금은 최참의택의 하나밖에 없는 장성한 젊은 도령이다. 남의 이목은 차치하고라도 천한 산승(山僧)이 양반 자제에게 하계를 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두산이 아제 편에 운해사 절 사정을 소상히 들어 알았습니다. 모우당 큰스님의 사리탑을 아직두 세우지 못했대구 들었습니다만?”

“7년 난 끝이라 불사(佛事)일으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그려. 제입치레두 바쁜 세상이라 누가 절에 시주를 허겠는가. 내 정성과 덕이 부족한 모양일세. 내 오히려 탑을 세운다는 말만 내어 열반한 모우당께 죄만 크게 더헌 듯허네.”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 편히 공밥 먹은 곳이 그 운해사요 모우당 큰스님께섭니다. 그 때는 어린 탓으루 불도되는 것이 두렵기만 했으나 지금 생각허니 그 모든 것이 전생에 연이 있어 그리된 듯 허구먼요. 난중에 제 집안 여러 어른들이 원통히 목숨을 잃어 원혼된 님이 많사오이다. 그 님들을 천도하여 저승길로 잡아주고 싶사오나 그 방도를 알지 못해 지금껏 망설이구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알았으니 스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원력(願力, 염원을 비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 힘이 있을는지 모르겠네. 나라 위해 죽은 님들이 어찌 지금껏 극락정토에 들지 않았겠나. 자네가 천도치 않더라두 그 어른들 벌써 좋은 세상에 계실 겠세.”

“모우당의 사리탑을 세우신다니 제가 그 불사에 적은 힘이나마 보태구 싶사오이다. 제가 최씨 집안에 터럭만한 공두 없이 지금은 오히려 문중의 마지막 혈손이 되구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백부께서 집안의 장토를 남겨주신 외에 땅속 깊이 묻어두신 여러 귀물들까지두 제게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재물들이 따지구 보면 제 것이 하나도 없사오이다. 모두 우리 집안의 여러 조상님네들이 누대에 걸쳐 모아오신 재물이라 제게는 오히려 그 재물이 민망하고 두렵기만 하오이다. 스님께서 잠시 제 곁에 머무시어 제게 옳은 말씀을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밑에 있기보다 남들 위에 있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두산에게서 내 이미 자네 하는 일들을 소상히 들어 알구 있네. 자네가 지금 허구 있는 일들이 바루 부처님의 대자대발세. 선한 일하기가 어렵다구 히는 것은 그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발심(發心)이 어렵다는 이야길세, 자네가 이미 마음을 내었으니 무엇이 또 어렵구 두려울 겐가? 그래 지금 온 집안의 일들을 자네 혼자서 꾸려가구 있는 겐가?”

“옛적에는 하루해가 무척이나 길더니 요즘은 그 하루가 언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가 제 손 거치지 않는 것이 없사오이다. 거들겠다는 사람은 하루에두 수십 명이건만 모두가 밥자루들일 뿐 사람 같은 사람은 참으로 만나기가 어렵구먼요. 내 요즘에야 스님네들이 누더기 남의 걸치고 산에 사는 까닭을 어렵פות이 알 듯하오이다.”

사발이 조용히 웃을 뿐 더 대꾸하지 않는다. 짝쇠가 그제야 멈칫하여 사발을 따라 벼랑 아래 강물을 굽어본다.

인간사 허망함을 흐르는 남강물이 새삼 크게 일깨우는 것만 같다. 그들이 지금 걸터앉은 장대 석축이 바로 그 허망함의 생생한 현장이다. 이 작은 산성 하나를 빼앗고 지키느라 무수한 젊은 생명들이 허망하게 죽어갔다. 그들을 헛되이 죽게 한 것은 칼의 힘을 믿는 자의 광포한 탐심(貪心)때문이다. 어찌면 그들은 손에 쥔 칼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확실한 힘이라고 믿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칼의 힘은 또 다른 칼의 힘을 그 짝으로 부를 뿐이다. 칼이 지배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의 삶이 잠시 정지된 시간의 한 토막일 뿐이다. 그 정지된 시간을 다시 살아 흐르게 하는 것은 포악한 칼의 힘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부드러운 달빛이다. 한 달에 한 번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며 달은 칼의 덧없는 힘을 깊은 어둠 속에 어루만져 잠재운다. 그렇기에 앞서 산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흔적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남는 것이다.²⁷⁾

이 긴 인용문은 이제는 최참의택의 젊은 도령으로 가문을 이끌어가게 된 ‘ 짝쇠 ’와 사발의 대화이다. 소설의 첫머리를 열었던 두 인물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소설 전체를 정리하는 부분이다. 최도령은 과거 모우당에게 입은 은혜를 가슴 속에 품고 살다가 모우당의 사리탑 불사를 돕겠다는 뜻을 전하는 이 장면에서는 불심으로 보듬은 ‘ 짝쇠 ’의 성장이 인상적이다.

소설의 제목인 ‘ 달과 칼 ’에 대한 작가의 생각도 드러나 있는 인용부

27) 신서원본, 5권, 328~331면.

분이다. “칼이 지배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의 삶이 잠시 정지된 시간의 한토막일 뿐”이며, “정지된 시간을 다시 살아 흐르게 하는 것은 포악한 칼의 힘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부드러운 달빛”이라고 말한다. “앞서 산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흔적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남는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은 작가의 창작방법과도 맥을 같이 한다. 보통 인물들의 여러 이야기가 모여 창작된 역사의 장면들은 영웅을 중심으로 쓰인 어떤 역사소설보다도 독자의 가슴에 진한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작품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의승군을 문학적 형상화했음에 홍성원의『달과 칼』을 살펴보았다.

『달과 칼』은 대구매일신문 본, 한양출판사 본, 신서원 본으로 텍스트가 총 세 개가 있다. 그중 소설의 제목인 ‘달’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진 신서원 본을 결정 본으로 하여 논문의 텍스트로 삼았다.

임진왜란이 벌어진 시간적 흐름이 그대로 소설의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 사실과 대응되지는 않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은 사건에 등장하지 않는다. 소설에는 양반, 서출, 중인, 상민, 천민 등 조선시대 모든 계급을 망라해서 등장하는데 본 논문은 그중에서 승려들에 주목했다. 의승군을 다룬 문학 작품은 대개 서산대사 등 유명한 승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반해, 소설『달과 칼』에는 탁발을 하는 운수승인 ‘사발’, 절과 함께 입적한 운해사의 지주 모우당을 비롯하여 승병으로 나선 승려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 육전의 상황을 전함으로써 『달과 칼』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수군의 활약을 보완하여 임진왜란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있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게 된다.

작가는 탁발승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인상적으로 작품에

답아냈다. 또한 의승군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군관이나 수령들에게 받는 대우를 자세히 묘사하는 등 임진왜란 속에서 빛나는 전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의승군의 활약 대신 그 이면에 담긴 실생활을 담음으로써 과거의 소설 작품과는 차별화된 문학적 업적을 성취했다.

홍성원의『달과 칼』은 대부분 계급의 인물을 다룸으로써 임진왜란의 전모를 잘 담아낸 문학 작품이면서도 특히 불교계와 의승군을 다루었다는 점이 특징인 작품이다. 2010년대 후반 조선시대 불교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성과를 참고하여 의승군의 활약을 다룬 문학 작품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Abstract]

Literary Portrayal of the Righteous Monk
Army(Uiseung-gu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Imjin Waeran)
focused on Hong Seong-won's *The Moon and
the Sword*

Han-Myeongseop(Gacho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ng Seong-won's "Moon and Sword," which artistically portrays the righteous monk army that played a significant rol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There are three versions of the text for "Moon and Sword": the Daegu Daily Newspaper version, the Hanyang Publishing House version, and the Shin Seo Won version. Among them, the Shin Seo Won version, which includes additional content about the 'moon' in the title, was chosen as the definitive version for this paper.

The temporal flow of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s reflected in the timeline of the novel. However, it does not correspond to historical facts. Well-known historical figures from the time of the Japanese invasions do not appear in this novel. The novel features characters from all classes of the Joseon era, including the yangban (nobility), seochul (lower class), jungin (middle class), sangmin (commoners), and cheonmin (lowest class). This paper focuses on the monks among them.

Literary works dealing with the righteous monk army usually center around famous monks like Seosan Daesa. In contrast, “Moon and Sword” features monks who have taken up arms, including a fortune-telling monk named ‘Sabal’, and monks who have entered the priesthood along with the temple, such as the landlord of Unhaesa, Moudang. Through the scenes where these characters appear, the novel complements the exploits of the naval forces, which are the most heavily dealt with in “Moon and Sword,” and achieves overall balance in artistically portray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The author impressively depicts how fortune-telling monks are treated. Also, while explaining the activities of the righteous monk army, the author vividly describes the treatment they receive from military officers and local governors. Instead of focusing on the well-known exploits of the righteous monk arm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the author achieves a unique literary achievement by capturing the real life behind it.

Hong Seong-won’s “Moon and Sword” is a work that stands out for its treatment of the Buddhist community and the righteous monk army, while also capturing the full picture of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by dealing with characters from most classes. It is hoped that new research attempts on literary works dealing with the exploits of the righteous monk army will continue, referring to the results of active research on the Buddhist community of the Joseon era in the late 2010s.

Key words : Imjin War, Seunggyun, “The Moon and the Sword”, Hong Sung-won, historical novel, monastic soldiers, emphasizing Confucianism

[참고문헌]

■ 기본자료

홍성원, 『달과 칼』, 신서원, 2005

■ 단행본

이승준, 『홍성원 장편소설 연구』, 역락, 2017.

최유찬, 『“토지”를 읽는 방법』, 서정시학, 2008.

홍정선 편,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7.

■ 논문 및 기타 자료

고영섭, 「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72,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3.

김용태, 「조선전기 역불 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 『조선시대사학보』 58, 조선시대사학회, 2011.

김용태,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 『보조사상』37, 보조사상연구원, 2012.2.

김용태, 「조선 중기 의승군 전통에 대한 재고: 호국불교의 조선적 발현」, 『동국사학』61,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12.

이승준, 「‘달과 칼’연구-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홍성원 장편소설 연구』, 역락, 2017.